

다윗 이야기

④ 좋은 친구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나 레 이 셴 이스라엘을 공포에 빠뜨렸던 블레셋과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민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 람 들 다윗 만세~~



나 레 이 셴 사울왕도 그 용기와 업적을 인정해서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였답니다. 다윗은 어느 곳을 가든지 지혜롭게 행동하여 백성과 지도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게 됩니다.

백 성 1 사울왕도 대단하지만 요즘은 다윗 장군님이 더 대단해!

백 성 들 다윗 장군님 만세! 만세! 만만세~!



백 성 2 이스라엘에서 제일 훌륭한 분은 바로 다윗 장군님이야~

나 레 이 셴 하지만 사울왕은 다윗이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명성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며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사 울 흠.. 이것봐라...

나 레 이 셴 그러다가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어느 날부터인가는 다윗이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사 울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있어, 저 녀석은 결국 나를 몰아내고 이곳의 왕이 될게 틀림없어. 저 녀석을 없애지 않으면 나와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 거야. 저 녀석을 없애야해. 없애버려야 해~!!



나 레 이 셴 그때부터 사울왕은 부하들을 시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직접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사 울 이놈~~~ 죽어버려라 이놈~~~

다 윳 허억!



나 레 이 셴 이때 다윗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몹시 걱정한 사람은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오래전부터 깊은 우정을 간직한 친구였습니다. 기쁠 때든지 힘들 때든지 언제나 함께하며 서로를 사랑했던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이랬던 친구였기에 위험에 처한 다윗은 친구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다 윳 요나단!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너희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냐? 내가 무얼 잘못한거지? 요나단! 나 너무 무서워...



요 나 단 다윗~ 너랑나랑은 하나! 의리!! 먼저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 알아볼게. 그리고 정말 너를 죽이려고 하신다면, 다윗! 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안전하게 지켜줄게. 다윗~~ 걱정 말고, 오늘은 꼭 자... 아버지를 대신해서라도 내가 미안하다...



요 나 단 다윗~~ 난, 내가 왕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니가 다치지 않고 니가 잘 지내면 그걸로 족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 나중에 니가 왕이 되면 나와 우리 가족을 꼭 부탁한다.

다 윗 그래,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약속 반드시 지킬게.

요 나 단 아버지, 어찌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잔인하게 하십니까?

사 울 왕 이놈! 네 녀석이 다윗과 가까이 지내는 게 우리 가문의 수치란 걸 모르느냐? 이놈! 다윗이란 놈이 살아있으면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없고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해진다. 그러니 당장 그 녀석을 끌어 오거라. 이놈! 그 녀석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놈!

요 나 단 아버지, 그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당장 그만 두십시오!!

사 울 왕 네 이놈~~~ 너도 죽고 싶은 게냐!! 오라, 다윗과 한패인 네놈도 죽여주마! 이놈!

.....

나 레 이 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진짜 죽이려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너무도 슬퍼하며 방을 뛰쳐나왔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요나단은 숨어있는 다윗에게 몰래 찾아가 다윗에게 도망쳐야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하며 서로를 부둥켜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요 나 단 엉엉..

다 윗 나도 엉엉...

나 레 이 셴 쓸쓸히 도망치는 다윗의 뒷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계속 울었고,

요 나 단 엉엉... 나 계속 엉엉...

나 레 이 셴 다윗도 멀리서 자신을 돕는 요나단을 생각하며 엉엉 울며 도망쳤습니다.

다 윗 엉엉... 나도 계속 엉엉...

달 나도 엉엉...

나 레 이 셴 이때부터 다윗의 삶은 고난스럽게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전에 누리던 행복은 사라지고 죽음의 위협과 도망다니는 괴로움을 견디며 살게 됩니다. 과연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